



美, 知的所有權 侵害國 제재

美政府, 知的所有權 保護法案 議會제출

「로널드 레이건」美행정부는 7일 청바지와 로큰롤 테이프에 이르는 美商品들의 商標와 著作權에 대한 국제적盜用을 防止토록 하기 위한 일련의法案들을 議會에 提出했다.

「멜컴 볼드리지」美상무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로 自由中國, 韓國 그리고 기타 太平洋연안국들 제조업체들의 模造商品이 美업체판매시장에 80억 달러에서 2백억 달러의 손실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 模造行偽중에는 生產品의 技術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레이건」행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제재조치중에는 △美國의 著作權 特許權을 침해한 商品에 대해 수입금지를 강화하고 여기에 생산기술에 관련된 것도 확대 포함시킨다. △해적상품의 판매 때문에 손실을 입고 있다는 사실을 우선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 美기업사들이 貿易法에 의한 權利侵害판결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공동으로 해외에 기술면허를 대여하고 있는 會社들에 대해 트리스트금지法規定의 적용을 완화한다. △美商品의 표절이나 模造品生產等 해적행위를 용인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貿易特惠措置의 거부

를 허용한다는 것 등이 들어 있다.

美통상대표부(USTR) 「클레이튼 앤더슨」대표는 美知的所有權을 가장 자주 침해하고 있는 나라도 韓國·自由中國·싱가포르를 들었다.

美관리들은 美特許 및 知的所有權 침해사례로 自由中國의 배추인형과 청바지 생산, 韓國의 해적판 비디오 테이프와 영화, 日本의 광섬유등을 들었다.

日, 特許廳

「特許研究」펴내

日本特許廳은 21世紀의 國際工業所有權制度에 대응하기 위한 研究政策의 일환으로 최근 「特許研究(PATENT STUDIES)」을 發刊했다.

이 책은 이번 創刊號에 이어 每年 2回 發行할 예정이며 앞으로 실릴 내용은 工業所有權制度를 주제로 한 각계의 권위자 및 최신연구 결과를 계재함과 아울러 중요 연구자료 등을 소개하게 된다.

또 論文·研究調查報告 등을 분석·소개하고 判例등 法改正의 情報 등을 실는다. (8)

日, 「試作開放研究所」設置 中小企業과 個人發明人 支援위해

(財) 日本發明振興協會는 現存 中小企業과 個人發明家를 支援하기 위하여 科學技術廳의 보조로 「試作開放研究所」를 설치하고 一般研究者들의 이용을 도모하고 있다.

이研究所에는 精密旋盤·平面研磨盤·萬能프레이즈盤·模形프레이즈盤·콘다이머신·萬

能試驗機 등 각종 기기를 설치하고 中小企業 및 個人發明家가 發明品을 實費로 試作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또한 전속기술지도원이 상주하여 發明研究의 기술상의 相談에 응하고 있으며 이용차와의 試作品製作을 支援하고 있다.